



맨유의 박지성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 선발 출전. 전반 8분 선제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 지성, 꿈의 무대에서 더욱 빛났다

2005년 챔스리그 AC밀란전 이어 4년만에 득점포  
 시즌 4호골... 맨유, 아스널 3-1 누르고 결승 진출

‘최근 부진과 준결승 1차전 홈경기 결장의 아쉬움을 털어내는 시원한 득점포였다’ ‘챔피언스리그의 사나이’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지난 2005년 7월 맨유 입단 후 처음으로 ‘꿈의 무대’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큰 무대에 강한 체질임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6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인 아스널과 2008-20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원정경기가 열린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경기장 관중석은 아스널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로 물들었지만 골키퍼에서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박지성이 안방 대승으로 결승행 티켓을 얻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아르센 웅크 아스널 감독에게 빼앗은 일격을 가했다.

박지성이 경기 시작 8분 만에 페널티지역 왼쪽을 파고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왼발로 절묘한 땅볼패스를 찰러주자 골키퍼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것. 박지성은 수비수 키에란 길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틈을 놓치지 않고 뒤로 미끄러지면서 오른발을 갖다댔고 공은 반대편 골망을 세차게 흔들었다.

준결승 1차전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던 맨유가 아스널의 역전 승리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적인 골이었다.

박지성으로서는 맨유 입단 후 3년 11개월 만에 꿈의 무대에서 처음 쏘아 올린 득점포여서 기쁨이 더욱 컸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2골과 FA컵 1골에 이은 시즌 4호골로 맨유 유니폼을 입고 수확한 개인통산 12호골이다.

박지성은 지난 2007-2008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큰 무대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AS 로마(이탈리아)와 8강 1차전부터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준결승 2차전까지 네 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출장하며 소속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앞장섰다. 정작 첼시와 결승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박지성의 꿈의 무대 활약은 절대 퇴색되지 않았다.

박지성은 이번 시즌 들어서도 중요 경기에 투입되며 맨유의 3월 최우수선수(MVP)로 뽑힐 정도로 주전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난 4월1일 북한과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1-0 승리)을 다녀오고 나서 컨디션 난조에 빠지면서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

4월23일 포츠머스전과 26일 토트넘 홋스퍼전에서는 두 경기 연속 18명 엔트리에서 아예 빠졌고 같은 달 30일 아스널과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홈경기에서도 교체 명단에 들지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출격 명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컨디션을 회복한 박지성은 지난 2일 미들즈브러와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0 승리에 왜기를 박는 시즌 3호골을 터뜨려 퍼거슨 감독의 믿음에 부응했다. 결국 아스널과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원정에서도 선발 중책을 맡고 호날두와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호흡을 맞출 수 있었다.

박지성은 활발한 움직임으로 아스널의 문전을 위협하다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맨유 입단 후 첫 두 경기 연속 골이자 챔피언스리그 첫 골을 안성했다.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 소속이던 2005년 5월5일 AC 밀란(이탈리아)과 준결승 2차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이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무려 4년 1일 만에 사냥한 기본 좋은 골이었다.

박지성은 이어 2-0으로 앞선 상황에서도 호날두의 왜기골의 출발점이 되는 패스를 하는 등 풀타임으로 3-1 승리에 앞장섰다. 꿈의 무대에서 더욱 빛이 난 박지성의 완벽한 활약이었다.

## “챔스리그 결승 무대 꼭 뛰고 싶다” “지성 최고 활약... 결승전 뛰게 할것”

**박지성 강한 의지 피력**

“결승전은 모든 선수가 원하는 무대다. 나 역시 결승 무대에서 뛰고 싶다”

2008-20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박지성이 오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치러질 결승전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성은 6일 오전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2008-2009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전반 8분 선제골을 장식하며 3-1 승리의 초석이 됐다.

지난 2일 미들즈브러와 정규리그 35라운드에서 시즌 3호골을 맞췄던 박지성은 4일 만에 두 경기 연속골을 꽂으면서 맨유 흥산

12호골을 기록, 팀 내 입지를 확고히 했다.

박지성은 “2경기 연속골의 즐거움보다 팀이 이기는 데 보탬이 돼 기분이 좋다”라며 “팀이 또 한 번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해서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승전을 기대하고 있다. 모든 선수가 결승에서 뛰고 싶어한다. 물론 나 역시 결승전에서 뛰고 싶다”라고 간절한 속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박지성은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 아예 출전명단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구단 측은 박지성의 활약을 인정해 우승 메달을 전해줬다.

박지성은 특히 퍼거슨 감독의 선수 ‘로테이션 시스템’ 덕분에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퍼거슨 감독, 출격 시사**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산소 탱크’ 박지성(28)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결승에 뛰게 할 것임을 내비쳤다.

퍼거슨 감독은 6일 오전 아스널과 2008-200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원정경기(3-1 승)가 끝난 뒤 전반 8분 선제골을 터뜨린 박지성에 대해 “맨유로 이적한 이후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지성은 활약상과 비교하면 가장 과소평가 받은 선수”라면서 “한국 대표팀 경기를 치른 후 박지성이 무척 피곤해 보여 2주 정도의 휴식을 줘야”며 최근 연속 결승 이유를 설명했다.

퍼거슨 감독은 또 “이번 결승전에서 박지성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박지성을 올 시즌 대망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뛰게 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지성은 2007-2008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때 FC 바르셀로나(스페인)과 준결승 2차전까지 네 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며 팀의 결승 진출에 앞장섰지만 지난해 5월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첼시와 결승전에서는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에게 2주간 휴식을 준 것은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면서 “지난 토요일 팀에 복귀하자마자 팀 승리에 큰 기여했고 오늘 아스널과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빛났다”고 말했다.

## “야구할 수 있어 행복” 투런포로 복귀 신고

부상 딛고 645일만에 돌아온 KIA 흥세완



어린날, 어린이들보다 더 설레었던 큰 어른이 있었다.

2007년 7월29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에서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쓰러졌던 KIA 타이거즈 내야수 흥세완(사진)이 그 주인공이다.

수술 후 2년 가까이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던 흥세완이 5일 방방이를 재조준 했다.

흥세완은 지난 겨울 자비로 필리핀 훈련을 다녀오면서 길고 힘든 재활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렸다. 이후 팀 전지 훈련에도 참여했지만, 허리 답으로 중도에 귀국하면서 복귀가 늦어졌다.

2군에서 야구 인생의 마지막 칼날을 간 흥세완이 마침내 조범현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선수단 합류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3일. 몸 상태 점검을 위해 선수단에 합류하라는 통보를 받은 흥세완은 원정에 대비한 짐을 챙기라는 주문도 함께 받았다.

흥세완은 소풍 가는 아이의 심정으로 짐을 꾸렸다. 4일 서울행 버스에 오른 순간은 프로에 데뷔하던 날 보다 더 떨리고 긴장됐다.

5월을 목표로 준비했지만, 이렇게 빨리 1군에 합류할 것이라는 확신은 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흥세완은 곧바로 3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다. 그리고 645일 만의 복귀전이었다 이날 2-2로 맞서던 3회, 장원삼을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역전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팀의 6-7 역전패로 홈런이 빛을 바래간 했지만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

흥세완은 “운이 좋았다”면서도 “좋은 출발을 하게 돼 마음이 가볍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경기가 시작되고는 마음이 편해져 즐기며 경기를 했다”면서 “얼마나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타선에 힘을 보태고, 장기적으로 수비에서도 역할을 하고 싶다”는 각오도 밝혔다.

출발은 성공적이었지만 흥세완에게는 주어진 속제가 많다.

그라운드를 떠나 있는 동안 좋은 투수들이 많이 등장한 만큼 이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해야하고, 고참으로서 후배들도 이끌어야 한다.

한층 젊어진 선수단에서 흥세완은 어 느덧 이종범에 이어 김성훈, 장성호와 함께 ‘노장급’ 선수가 됐다. 원정 플레이 팀 김선빈과도 12년의 터울이 생길 만큼 어깨가 무거워졌다.

자신의 일처럼 훈련을 함께 기뻐 해준 동료들이 고마웠다는 흥세완은 이제 자신의 이름보다 ‘KIA 타이거즈’라는 이름이 더 각별하게 와 닿는다.

야구를 할 수 있어서, 그라운드에 설 수 있어서 마냥 행복한 흥세완의 도전이 다시 시작됐다.

### 서재응 팔꿈치 통증 결장

KIA 타이거즈 서재응이 팔꿈치 통증으로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졌다.

서재응은 당초 6일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2차전 선발로 예고됐지만 경기전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임준혁이 선발로 긴급 교체 투입됐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서재응은 1주일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마운드에 빛을 바래간 했지만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다.